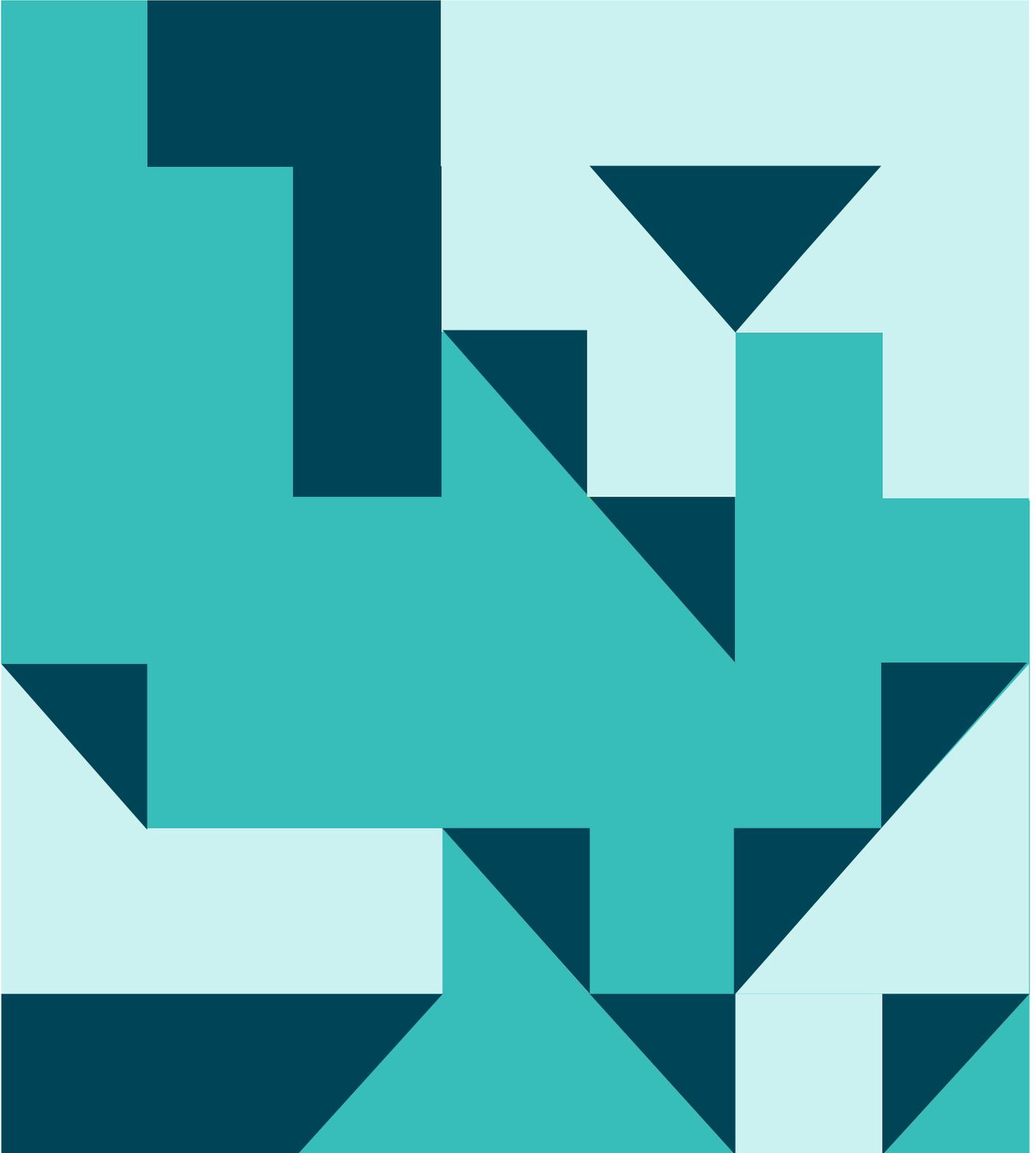


#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5월호

\*임팩트온의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는 매월 분야별 ESG 트렌드를 주제별로 정리해 제공하는 연중 기획 시리즈입니다.



##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5월호 | Monthly ESG Trend Report

---

임팩트온 홈페이지 <http://www.impacton.net/>

### 조사 및 작성

01 ESG 정책            임팩트온 송준호 에디터

02 에너지 & 산업    임팩트온 송선우 에디터

03 전기사 산업        임팩트온 홍명표 에디터

04 ESG 투자            임팩트온 이재영 에디터

05 기후테크            임팩트온 김환이 에디터

06 이달의 핫이슈    임팩트온 박란희 편집장

편집 디자인            임팩트온 이승진 디자이너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 01 ESG 정책

## Key Takeaways

- 한국과 미국은 각각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과 20개년 장기 송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미국은 송전망 계획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EU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을 포함해 주요 ESG 관련 지침과 법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지속가능성 기준 제시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ESG펀드 명명 규정 가이드라인 최종안도 발표하여 금융시장의 그린워싱을 더욱 엄격히 감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중국은 녹색 무역장벽과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은 2025년까지 탄소를 2억6000만톤 감축하고 저탄소 차량 구매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내수시장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 I 한미,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핵심 전력 정책 발표

탄소중립 경제는 전기화로 지탱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력 수급이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기화는 ▲재생에너지 발전 공급 확대 ▲송전망 확충 ▲전력 구매계약(PPA) 활성화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에서도 전력에 관련한 주요 정책들이 발표됐다.

한국은 지난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전기본)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의 전원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림) 제11차 전기본 계획의 발전원 비중/산업통상자원부

< 발전량 및 발전 비중(안) (단위: TWh, %) >

구분	원전	석탄	LNG	신재생	수소 암모니아	기타	합계	탄소	무탄소
2030년	204.2 (31.8%)	111.9 (17.4%)	160.8 (25.1%)	138.4 (21.6%)	15.5 (2.4%)	10.6 (1.7%)	641.4 (100%)	301.9 (47.1%)	339.4 (52.9%)
2038년	249.7 (35.6%)	72.0 (10.3%)	78.1 (11.1%)	230.8 (32.9%)	38.5 (5.5%)	32.5 (4.6%)	701.7 (100%)	209.1 (29.8%)	492.6 (70.2%)

\* 무탄소에너지 : 원전 + 신재생 + 수소·암모니아 - 연료전지·IGCC

문제는 발표된 전기본 대로 이행했을 때,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1.6%에 불과해, 이는 지난 10차 전기본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30.2% 대비 크게 모자란 수치다. 제11차 전기본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보장할 정책 환경을 조성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증대하는 것을 넘어 송전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송전망의 부족이다. 이에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지난 13일(현지 시각) 10년 만에 가장 큰 송전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 법안은 20개년 장기 송전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송전 수요를 파악하여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FERC가 장기 송전 계획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다룬 사례다.

이전의 전력망 계획은 단기로 마련해 왔으나, 이번 규칙은 최소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한다. 이는 에너지 수요 변화와 전환, 기후 변화와 같이 장기적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전력망 신설에 단순 비용과 효율성만 고려해 오던 방식에서 경제, 환경, 사회를 포함한 장기 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방침이다.

전기화가 촉진되려면 생산된 전력이 기업 간에 원활히 거래되는 것도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교적 원활한 미국과 유럽의 경우, 전력시장의 개방성과 민영화 비율이 높다. 이에 전력공급업체와 기업 사용자 간의 재생에너지 공급체결이 상대적으로 원활하다. 미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미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에서 PPA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에 달한다.

PPA가 확대되려면 이 거래를 통해 조달한 재생가능 전력의 비용이 낮아져야 한다. 비용이 낮아지는 데는 전력 시장의 개방성도 중요하다. 한국은 한국전력의 독점적인 전력시장 구조가 PP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전은 이 문제로 인해 소송전도 치르고 있다.

PPA는 대부분 장기 계약의 형태로 체결된다. 기업은 장기 계약만큼 안정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전력 거래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계약의 회계처리가 개선되면 가격 변동성, 계약 의무와 같은 계약과 관련된 재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8일(현지 시각) 재생에너지 계약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IFRS 7(금융상품의 공시)과 IFRS 9(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것으로 재무제표가 재생에너지 전력 계약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IASB는 의견을 수렴한 뒤 2024년 4분기에 개정안을 발행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발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 EU, 4대 ESG 법안 최종승인... ESG펀드 그린워싱도 단속 강화

유럽연합은 5월에도 ESG 관련 법안들을 쏟아내며, 기준 제시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핵심 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넷제로 산업법 ▲메탄배출 제한 가스 수입법 ▲에코디자인 규정으로 모두 최종 승인됐다. 해당 지침과 법안들이 승인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은 지침으로 회원국들이 향후 2년간 국내 법을 제정한 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적용 대상 기업은 지침이 규정하는 인권 또는 환경 피해를 모니터링,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위험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행할 의무를 갖는다.

넷제로 산업법(NZIA)은 유럽이 미국, 중국에 대해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법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불린다. NZIA는 유럽 역내에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히트 펌프 및 기타 청정 기술 장비의 40%를 생산하고 2040년까지 해당 기술의 세계 시장 가치의 15%를 점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다만, 이 법은 지원하겠다는 자금을 어떻게 충원할지와 같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메탄 배출 제한을 둔 가스 수입법은 2030년부터 유럽의 석유 및 가스 수입에 메탄 배출량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글로벌 공급업체들의 온실가스 누출을 줄이도록 하는 법이다. EU가 전환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LNG)를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지만, LNG의 주성분이 메탄이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EU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 넷제로산업법 / EU이사회



에코디자인 규정은 제품의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요건을 담은 지침이다. 제품의 지속가능성은 ▲제품의 내구성 ▲재사용성 ▲업그레이드 및 수리 가능성 ▲순환성 저해 물질 사용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재제조 및 재활용 ▲제품의 탄소 및 환경 발자국 등 다양한 지표로 평가하며,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U는 자본시장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ESG펀드 명명 규정 가이드라인 최종안](#)도 발표했다. 최종안은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80% 이상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해야만 ESG나 지속가능과 같은 키워드를 펀드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다.

주무기관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0개 이상의 은행과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그린워싱 여부를 검토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이 그린워싱 방지 기준을 마련했다면, 이번 조사는 실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그린워싱의 사례를 조사하여 현황과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고서는 EU 금융시장의 그린워싱은 여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내부에 그린워싱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버넌스와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중국 단기 배출량 감축 방안, 무역전쟁 대응 고도화... 건재한 내수시장과 녹색 리더십 강조

아시아는 탈탄소화 계획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의 생산량을 단기적으로 줄일 계획을 들고 나왔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9일 2024~2025년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2025년까지 탄소 2억6000만톤 감축을 위해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 생산량 통제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방침이 포함됐다. 2억6000만톤은 자동차 5660만 대의 탄소배출량에 맞먹는 수치다. 국무원은 이번 발표에서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각각 2.5%, 3.9% 줄이겠다고 밝혔다. 해외 미디어 블룸버그도 이번 정책이 해당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서방국으로부터 철강, 배터리, 태양광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과잉생산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과잉생산 문제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중국 태양광산업협회는 “중국 기업들의 과도한 가격경쟁과 과잉생산이 글로벌 태양광 산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제는 산업 및 국가 차원에서 직접 개입해 상황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가 안팎으로 커지자, 중국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 내수시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요 확대로 과잉생산 문제를 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무원은 교통, 운수 장비의 저탄소 전환과 노후 자동차 퇴출 가속화, 차량 에너지 소비 제한 기준 개선 지침 등을 하달했다. 또한 지역별로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신재생에너지차 구매 제한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차 통행 편리화 등 지원 정책을 이행하라는 항목도 명시했다.

그간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대다수 도시들은 신재생에너지차 구매에 제한이 있었다. 예를 들어 상하이와 선전 등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보험을 납부한 사람만 신에너지차 구매가 가능했으며, 베이징에서는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는 방식을 통해 신에너지차 번호표를 받아야지만 구매 자격 획득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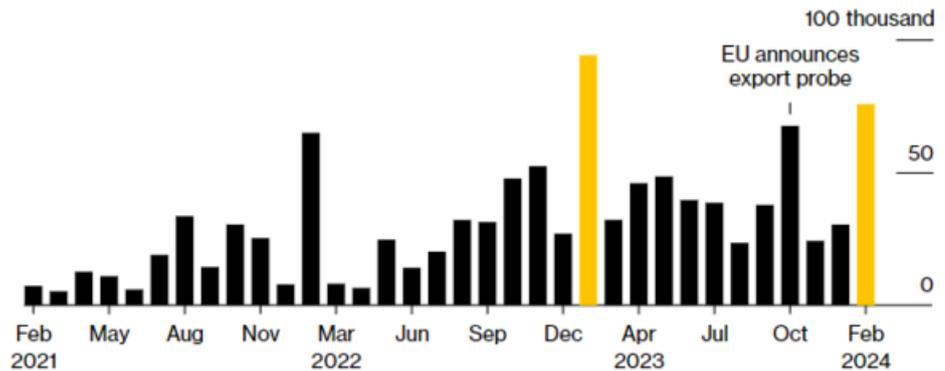
업계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힘입어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차 보급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 또한 올해 자동차시장 총판매량은 3100만 대, 이중 신에너지차는 115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견제하여 세운 무역 장벽에 대해 대응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두 대륙이 세운 관세 장벽에 보복관세와 WTO 제소라는 같은 방식으로 응전](#)한 데서 더 나아가 든든한 내수 시장과 녹색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이와 같은 발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중국 전기차의 EU 수출이 감소했다. / 블룸버그

### Drop in China Electric Vehicle Exports to EU

Exports of pure EVs in January-February down nearly 20% on-year

■ Units exported, monthly



Source: China Customs; Bloomberg

Note: Refers to exports under customs code 87038000. January and February data combined due to lunar new year

[일본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2040년을 목표로 탈탄소화와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13년 수준보다 46% 줄이고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40년까지 내다보는 일본 최초의 장기 산업전략이다. 일본의 에너지공급, 산업 입지, 산업구조, 시장창출 등 4대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은 이 전략을 참고하여 장기 투자를 계획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2025년 3월까지 에너지 전략 계획을 개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초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각계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일본이 이 계획을 낸 데는, 세계 각국의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및 에너지 수요가 집중적인 기타 기업을 유치함에 따라 이뤄졌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일본의 전력 소비는 2050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35~50% 증가할 수 있다. [일본은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량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듯하지만, 원전 재가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ditor's Comment

미국과 유럽, 중국이 영향력 높은 정책들을 쏟아냄으로 지속가능성 의제를 리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에 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활발한 PPA가 가능한 시장 환경을 만들고 장기 송전망 확충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공급을 확대한다. 유럽은 탄소노미를 기반으로 한 각종 정책 기준을 제시한다.

중국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단기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ESG 법과 정책, 배출량 감축이라는 세 가지 지점에서 이처럼 분명한 기초를 보여주지 못하는 듯하다. 정부 부처들은 사일로를 모두 해소하고 시장에 불확실성을 줄일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 02 에너지&산업

### Key Takeaways

-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신장위구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기업의 저가공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국내 또한 알루미늄 등 리스크가 높은 물품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재생에너지 업황 회복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안티 ESG의 대표주자인 텍사스에서 사상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이 화력발전량을 앞질렀으며, 글로벌 전력 비중에서 재생에너지가 30%를 달성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과잉공급 및 과도한 가격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 친환경 산업의 광물 공급망 ESG 리스크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원주민 지역사회와의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 부재와 제3자 감사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지적받고 있다. 실제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이 해당 문제로 애플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 심화되는 신장 위구르 리스크, 세제혜택 철회에서부터 수입금지 조치까지...

미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관세청이 중국산 면화생산 및 유통기업 26곳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고, 20일에는 [미국 상원의원 재무위원회 조사결과 BMW, 재규어 랜드로버, 폭스바겐이 미국이 신장 지역 강제 노동 연루혐의로 지목된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중국산 양면 태양광패널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를 철회하는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신장 위구르 연루 제품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며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투자자 사이에서도 신장위구르 리스크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인권단체 옥스팜 아메리카(Oxfam America)는 월마트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결의안을 제출해 신장 위구르 금지법에 대비해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6월 5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주목해서 봐야할 품목 중 하나는 알루미늄이다. 중국산 알루미늄의 경우, 신장 위구르 금지법 제제 품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국내 알루미늄 기업이 중국산 알루미늄 원자재를 가공해 이를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것이 적발되면서 미국으로 부터 추가관세를 부과받기도 했다. 또한 작년 2월에는, 미국 관세청이 중국산 알루미늄 사용 의심제품을 억류하고, 올해 2월에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자동차업계의 신장 위구르산 알루미늄 사용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등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신장 위구르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광물자원통계포털에 따르면](#), 중국은 호주에 이어 대한민국의 알루미늄 수입 2위 국가로 전체 수입액의 30% 가량을 차지한다(약 1100만달러). 알루미늄은 자동차, 건설, 전자, 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럽에서도 중국기업의 신장 위구르 인권 이슈가 격화되고 있다. EU는 150유로(약 22만원) 미만의 해외수입제품에 관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저가 제품 위주인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와 의류판매기업 쉬인에 대한 관세 면제혜택을 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쉬인의 경우 강제노동 및 노동자 착취문제로 인해 주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22년 블룸버그가 쉬인의 판매제품 일부를 추적](#)한 결과 강제노동에 연루된 신장 위구르 산 면화 사용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유럽에서는 고질적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독일소매업협회는 “세제 혜택으로 인해 중국의 값싼 물건들이 쏟아져들어오는 상황에서 신장위구르 제재 등 EU의 주요 규제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라며 “이는 EU 규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역내 기업에게 부당한 경쟁”이라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독일 재무부는 EU의 관세면제정책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림)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강제노동 연루혐의를 밝힌 휴먼라이츠 워치 / Human Rights Watch



##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희소식 이어져... 실적 반등할 수 있을까?

고금리와 공급과잉 등의 이슈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업황 회복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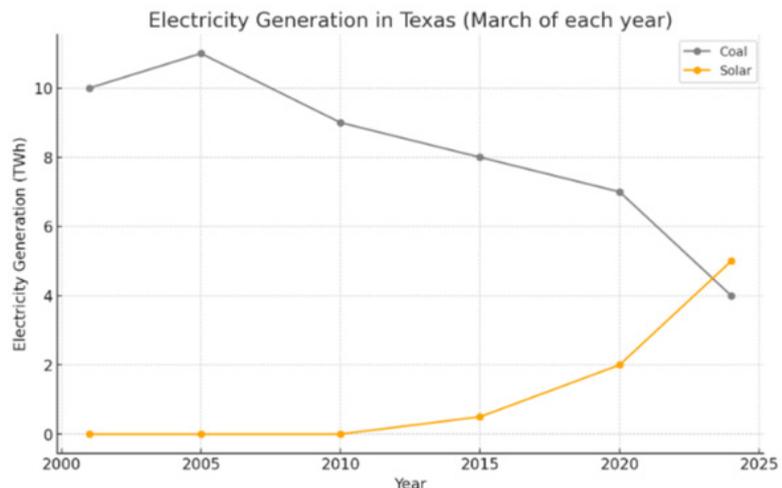
텍사스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태양광 에너지 발전이 석탄 화력발전을 넘어서는 기록이 나왔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는 에 따르면, 텍사스의 태양광 에너지 성장률은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텍사스는 화석연료 투자 철회를 선언한 금융기관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안티 ESG의 선봉장으로 여겨졌기에 이러한 통계의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엠버는 '2024 글로벌 전력 리뷰' 보고서를 발간해 재생에너지 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여러 부정적인 환경요인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글로벌 전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엠버는 2024년이 에너지업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전력발전 분야에서 화석연료의 성장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급망 이슈, 중국의 덤핑 문제 등 외부 요인들이 해결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 등의 기술발전이 동반된다면 재생에너지 시장이 화력발전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재생에너지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중국 태양광업계는 과잉공급 및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기업들의 성과 부진을 이유로 정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회의에서는 원가이하 판매, 부당경쟁, 과잉 생산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과 민관협력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에 주요 글로벌 태양광 기업의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는 등 투자자들 사이에서 태양광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림) 텍사스의 화력발전(회색)과 태양광 발전(주황색) 추이



## | 친환경 산업의 이슈로 떠오른 광물 공급망 ESG 리스크

친환경 산업의 광물 공급망이 새로운 ESG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인권단체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BHRRRC)는 “2024 에너지전환 광물 (Transition Mineral) 추적 보고서”를 발간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 부문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발생한 ESG 리스크 사례를 집중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631건의 주요 사건이 발생했으며, 작년에는 91건의 사건이 발생해 리스크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사회와 글로벌 비영리단체가 연대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사업지연 및 중단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리스크가 격화되고 있는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ESG 리스크의 70% 가량은 환경 파괴와 지역사회 피해다. BHRRRC는 이 두가지 리스크가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해당 리스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 FPIC) 절차 부재와 제3자 감시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때문이다.



유엔 원주민권리선언, 국제금융공사(IFC) 투자 기준 등은 사업 수행 이전에 현지 지역사회와의 FPIC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 및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를 요구한다. 하지만 광물기업들은 채굴지 현지 주민과의 협의 없이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숲, 호수, 경작지 등의 파괴가 동반되는 경우가 잦다. 특히 중국 광물 기업들에게서 이러한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 실제 중국의 국유기업, 중국오광그룹에서는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글로벌 광물기업 ESG 리스크 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쓰게 됐다.

(그림) 글로벌 광물 기업의 ESG 리스크 발생 수 / BHRRRC

모회사	본사 위치	ESG위험 사례 수	인권 이슈	기타 이슈
China Minmetals	중국	72	38	34
Glencore	스위스	71	8	63
Grupo México	멕시코	34	5	29
First Quantum Minerals	캐나다	25	8	17
Codelco	칠레	24	5	19
Freeport-McMoRan	미국	24	10	14
Solway Group	스위스	21	15	6

제3자 감사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감사업체는 2-3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환경 및 인권 감사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지 지역사회와 환경 영향을 100%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22일, 콩고 민주공화국(DRC)의 펠릭스 치세케디 (Félix Tshisekedi) 대통령은 애플이 자국의 분쟁광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이에 애플은 “적절한 실사체계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DRC의 변호사가 애플의 분쟁광물사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애플은 국제주석공급망이니셔티브(ITSCI)의 광물 공급망 감사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인권 관리 실패로 주요 국제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ditor’s Comment

재생에너지 업황 회복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또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수익성이다. 중국의 과잉공급과 가격경쟁 완화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기업인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망 차원에서도 신장 위구르 리스크, 광물업계 ESG 리스크 등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03 전기차 산업

### Key Takeaways

- 5월 들어 전기 트럭관련 뉴스가 급증했다. 전기 트럭 제조는 물론 충전소 운영과 충전기 개발까지.
- 중국의 BYD가 공식 순항 거리만 2100km에 달하는 괴물 연비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발표해서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 전기차에 이어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월 전기차 시장은 바쁘게 움직였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5월 말에 BYD가 공식 항속 거리만 2100km에 달하는 괴물 하이브리드 세단을 내놓은 것이다. 전기차 판매량에서 1위인 BYD가 이제는 하이브리드 시장까지 삼키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냈다.

BYD의 괴물 하이브리드 승용차 이외에 큰 흐름은 ▲트럭의 전기화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의 개발 ▲베트남 전기차 빈패스트의 계속되는 질주를 꼽을 수 있다.

### | 전기 트럭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이미 시작돼

전기차 전문 미디어 EV리포트의 최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 전기 트럭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151억4300만 달러(약 20조77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형 트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여기저기서 전기 트럭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먼저 스포츠카의 명문 독일 포르쉐까지 대형 트레일러 트럭을 개발한 뉴스를 내놓았다. 포르쉐 차량을 수송하는 트레일러를 끄는 트랙터 트럭을 전기화한 것이다. 아직은 6대만을 제작해서 주행하고 있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포르쉐의 엠블럼을 달고 시장에 혜성같이 등장할 지 모른다.

일본은 이스즈(Isuzu)가 2019년에 일찌감치 미국의 커민스(Cummins)와 손잡고 무배출 트럭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커민스는 국내에도 대형 트럭에 엔진을 공급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친숙한 브랜드다. 커민스는 액셀러라(Accelera)라는 청정 에너지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서 무배출 트럭을 개발하고 있다.

이스즈는 베스트셀러인 엘프(Elf) 트럭을 비롯해서 중형 트럭에 강하고, 커민스의 자회사 액셀레라는 녹색 기술이 강해서 두 회사가 의기투합, 이스즈의 중형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개조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하고 2026년에 시판할 예정이다. 대형 트럭에 익숙한 커민스가 이스즈를 파트너사로 선택한 이유는 중형 트럭의 강자와 협력함으로써 경쟁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대형트럭시장 보다는 중형 전기 트럭 시장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클린테크니카는 최근 미국 트럭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합작사인 ZM트럭스(Trucks)**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일본과 중국의 합작사라 할 수 있는 ZM트럭스는 미국 시장을 향해 다양한 무배출 트럭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중소형부터 대형 트럭까지 선보이고 있으며, 일본처럼 좌측 통행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한 우핸들 트럭도 준비했다. ZM트럭스는 전기 트럭 뿐 아니라 대형트럭은 수소 연료전지 버전도 제작한다.

하이브리드의 강자 **도요타도 전기트럭 시장에 뛰어 들었다.** 도요타는 산하 트럭 브랜드인 히노(Hino) 자동차의 지점을 통해 연료전지 트럭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주력한다고 2020년에 이미 밝혔다. 히노자동차는 최근 노르웨이의 헥사곤 푸루스(Hexagon Purus)와 협력하여 새로운 대형 전기 트럭을 공개했다. 미국 생산은 올해 말 텍사스에 있는 히노의 공장에서 개시한다.

미국 전기트럭 브랜드로는 포드의 전기 밴(Van) 이트랜싯(E-Transit)을 비롯해, 하빈저(Harbinger), 라이온 일렉트릭(Lion Electric Company), 그리고 젊은 중국 청년이 이끄는 윈드로즈(Windrose)가 있다.

(그림) 미국의 라이온 일렉트릭의 중량급 트랙터 트럭 이미지. / 홈페이지



## | 미국은 전기 트럭 관련 인프라와 충전기 개발에도 박차

중국의 전기 승용차의 약진에 놀란 탓일까. 미국은 전기 트럭 시장을 선점하려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 전기 트럭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는 것과 발 맞추어 전기트럭 충전사업도 활발하다.

미국의 왓(Watt)EV는 캘리포니아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트럭 충전소를 5월초 개장했다. 이 회사는 1년 만에 네 번째 전기 트럭 충전소를 개장했다. 왓EV가 대형 전기 트럭 충전소를 1년 안에 4개나 개장한 것은 독특한 운영방식 때문이다. 전기 트럭이 트레일러를 끄는 트랙터이기 때문에 각 충전소마다 완충한 트랙터를 대기해놓고 화물을 배송하면서 충전소에 들러 트랙터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화물을 배송한다.

즉, 화물칸은 그대로고 끄는 트랙터만 교체해서 마치 릴레이 달리기를 하는 식으로 화물을 운송한다. 이런 독특한 운영 방식 때문인지 왓EV가 약속된 시각에 화물을 배달하는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한다.

빅테크 중 하나인 아마존도 캘리포니아에 대형 전기 트럭 물류센터를 개장했다. 이곳에 도입된 차량은 볼보의 대형 전기 트럭이다.

또한, 대형트럭 전기 충전사업의 선두주자 '포럼 모빌리티(Forum Mobility)'도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에 차량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시설은 매일 200대 이상의 대형 전기 트럭을 충전할 수 있다.

미국은 충전소 뿐 아니라 대형 전기 트럭용 충전기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거대 충전사업체인 차지포인트(ChargePoint)는 메가와트급 충전 시스템(MCS)를 출시했다. 직류 고속 충전기인 이 제품은 최대 1.2메가와트를 지원하며 향후 최대 3메가와트를 지원하도록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EV리포트는 이 충전기가 상업용 트럭 산업의 전기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즈필드에 들어선 세계 최대의 태양광 트럭 충전소 전경. / 왓EV의 유튜브 채널



## | 5월 들어, 수소 연료전지 차량 관련 소식이 급증세

한편, 전기 트럭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과 함께 5월에 주목할 만한 것은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 점이다.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은 주로 무배출 트럭시장에서 전기 트럭 제조사가 함께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을 오래 전부터 연구해온 현대차의 경우, 최근 미국에서 환경보호청(EPA)의 350만 달러(약 48억원)를 지원받아 2022년 미국에서 XCIENT 클래스8 연료전지 트럭을 출시했다. 이 자금은 현대차의 연료전지 전기 트럭 5대가 캘리포니아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됐다.

또한, 현대차는 올해 플러스(Plus)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율 클래스8 연료전지 트럭을 시연하기도 했다. 플러스의 레벨4 슈퍼드라이브(SuperDrive™) 시스템을 탑재한 현대차의 클래스8 XCIENT 연료전지 트럭이 올해 플러스의 ACT 엑스포 부스에 전시됐다. 이 트럭은 미국에서 최초의 레벨4 자율주행 트럭이라고 한다.

일본의 혼다도 올해 ACT 엑스포에 클래스8 수소 연료전지 트럭의 컨셉트 모델을 선보였다. 이 트럭은 3개의 새로운 혼다 연료 전지(FC) 시스템으로 구동되며 현재 미시간주 브라운스타운에 있는 GM과의 합작 투자 생산 시설인 FCSM(Fuel Cell System Manufacturing, LLC)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다. 또한, 혼다는 더 나아가 에너지 저장 스타트업 B2U와 손잡고 전자 폐기물인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재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도요타 북미법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구개발센터를 아에 북미수소본부(H2HQ)로 이름을 변경하고 수소 연료 전지를 노골적으로 밀기 시작했다. 도요타는 수소 연료전지 뿐 아니라 마이크로그리드 연구도 이 본부에서 진행한다. EV리포트에 의하면, 도요타는 30년 동안 수소 연료 전지를 연구해왔다고 한다.

미국도 최초의 미국산 수소 연료 전지 트럭을 5월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폐기물 엑스포(waste expo)에서 선보였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폐기물 수거 트럭인데 대형 트럭이다. 뉴웨이트럭스(New Way Trucks)와 하이존(Hyzon)이 협력해서 만들었다.

(그림) BYD가 선보인 괴물 하이브리드 세단 모델 두 종. / BYD의 중국 홈페이지



뭐니뭐니해도 5월 전기차 관련 최고 이슈는 BYD의 괴물 하이브리드 신차, 시라이온 (Sea Lion)을 공개한 것이다. 5세대 DMI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서 세계 최강의 연비를 자랑한다. 시라이온은 형제 차와 함께 발표됐는데 두 모델 모두 100km를 주행하는데 가솔린 2.9리터면 충분하며, 공식 순항 거리는 무려 2100km나 된다. DMI 하이브리드는 엔진의 힘보다는 전기 모터를 더 많이 사용해서 차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기존 하이브리드보다 더 효율이 높다고 한다.

중국 내 가격이 13만9800위엔(약 2660만원)으로 중국에서 경쟁하는 외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격에서도 상대가 안 될 듯하다. 하이브리드의 강자인 도요타가 긴장해야 할 지도 모른다.

끝으로 5월도 베트남의 전기차 빈패스트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다. 필리핀에도 진출했고 소니와 협업해서 세계 최초로 승용차 내에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간판 모델인 VF8은 태국의 NCAP 충돌 테스트에서 기염을 토했다. 6개 최고 안전도 수상 부문에서 5개나 차지했기 때문이다. NCAP은 자동차안전도평가의 한 종류로 각국마다 약간씩 달리 이름 붙이고 있다.

Editor's Comment

5월의 가장 큰 뉴스는 BYD의 괴물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닐까 싶다. 지금 중국에서는 소비자들이 경쟁적으로 이 차량이 연비가 얼마 나오는 지 테스트하고 있다고 한다. BYD가 전기차 제조사라고만 알았던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것이다. 전기차 캐즘 현상과 맞물려 하이브리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 04 ESG 투자

### Key Takeaways

- 녹색보호주의가 미국 기업 펀더멘털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태양광업체가 중국 기업을 따돌리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 주총 내 ESG 진영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 루이스 등 업계 ‘빅마우스’들이 ESG 관련 결의안을 지지, 눈길을 끌었다.
- 인공지능(AI)붐에 따른 에너지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권가는 원자력에 주목했다.

### | 녹색보호주의, 미국 기업가치 상승 견인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일단 효과를 발휘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반도체, 태양광 섹터 주가가 일제히 반등한 것이다. [미 태양광업체 퍼스트솔라](#)는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중국 기업이 1위를 내준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백악관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태양전지, 의료제품 등 전 부문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다. 그 규모는 180억달러(약 24조7230억원)에 달한다.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 배터리는 7.4%에서 25%로 각각 관세가 인상되며, 배터리 부품, 흑연 등 핵심 광물, 태양광 셀 등도 관세 부과 품목에 포함된다.

관세 조치에 힘입어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상장지수펀드(ETF)인 아이셰어즈 글로벌 클린 에너지 상장지수펀드(iShares Global Clean Energy Exchange Traded Fund)는 약 3% 상승했다. [CNN](#)은 그중 수소기업 플러그 파워(Plug Power)는 33%, 태양광기업 엔페이스 에너지(Enphase Energy)는 8%, 재생에너지기업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는 4%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전기차 섹터도 수혜를 볼 전망이다. [투자리서치업체 모닝스타](#)는 이번 대(對)중국 관세 조치가 테슬라, 포드, GM 등 미국의 전기차 개발 회사들의 내수 시장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 고전하는 이유는 중저가 옵션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저가 라인에 강점이 있는 중국 업체들이 차단되면 소비자 시선을 끌기에 훨씬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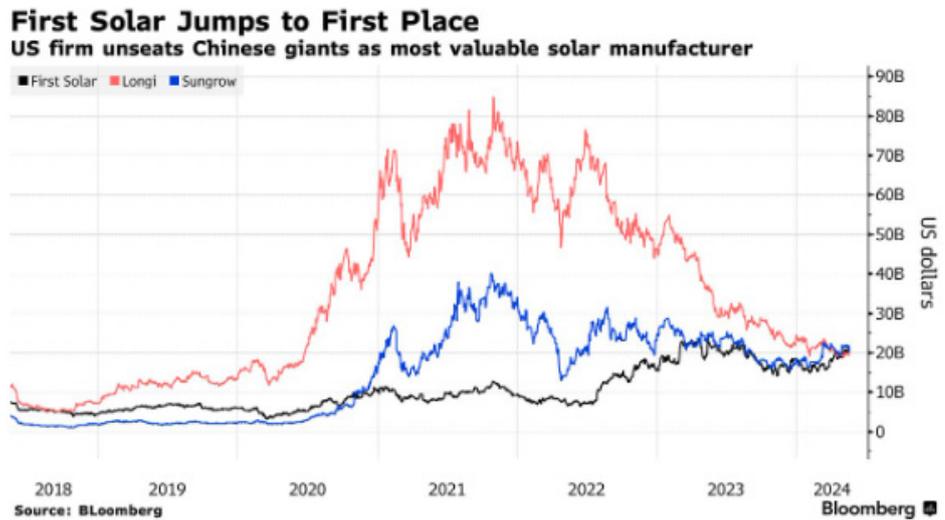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청정에너지 섹터의 상승은 단순히 관세 조치로 인한 기업 펀더멘털 개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 증시가 연일 호황을 누리자 일부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에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며, 에너지 섹터에도 일종의 '거품'이 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관세 폭탄으로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4일(현지시각) 2018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이후 수입국 변화 등 경제분석 보고서를 발표, 반도체와 기타 부품 분야에서 중국산 수입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연평균 20.5% 감소했으며 한국에서의 수입이 4년간 연평균 1.9%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가 “한국 기업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어부지리 기회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현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적으로 중국 견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11월 대통령 선거 전 추가적인 관세 인상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림) 퍼스트 솔라가 중국 기업들을 따돌리고 시총 1위를 달성했다. / 블룸버그



## |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경영진 결의안 반대 권고

올해 주총 시즌에서도 지난해 이어 에너지기업들과 기후 투자자들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업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 등이 기업 경영진의 반대편에 서면서 이목을 끌었다.

먼저 **테슬라**다. 글래스 루이스는 오는 6월 13일 연례 테슬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560억달러(약 76조9720억원) 스톡옵션 보수 패키지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보수 패키지는 2018년에 마련되었지만, 2022년 테슬라 소액주주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이를 승인한 이사회 독립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올해 2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이사회가 올해 주총에 다시 상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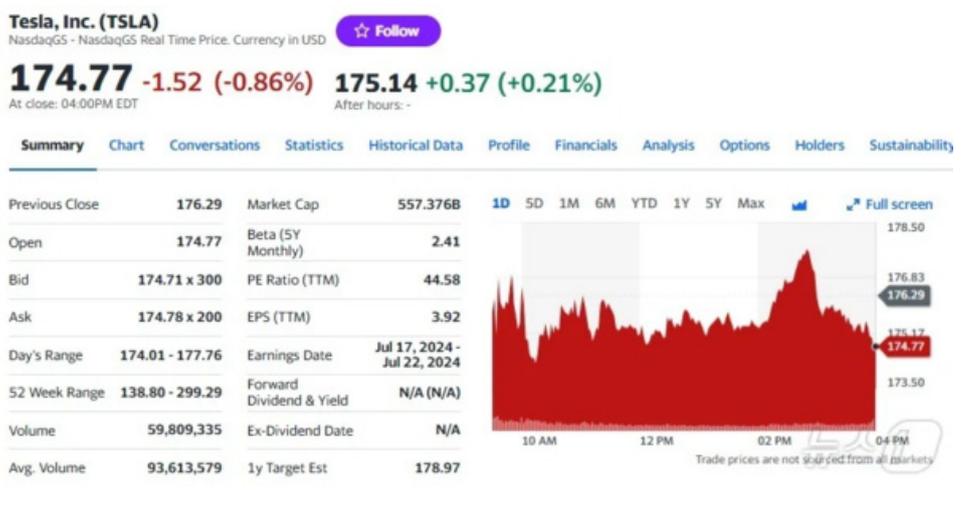
글래스 루이스는 해당 보수 패키지 안이 테슬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테슬라 주가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 사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월 4일(현지시각) CNBC는 **글로벌 투자은행 구겐하임(Guggenheim)**이 "일론 머스크 CEO의 자율주행 비전이 시장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가는 지금 보다 30% 더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테슬라 주가는 약 30% 하락한 상태다.

글래스 루이스는 지난 3월 미국 양대 석유메이저 엑손모빌의 경영진 재신임 안건에도 반대하고 나섰다. 투자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경영진이 “비정상적이고 공격적인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다. 미국 최대 공적 연금 캘퍼스(CalPERS,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등도 기존 이사회에 재신임에 반대했다.

(그림) 테슬라 일일 주가 추이 / 야후 파이낸스



지난 2월 엑손모빌은 행동주의 투자자 아르주나 캐피탈(Arjuna Capital)과 팔로우디스(Follow This)가 보다 강력한 기후 목표를 수립하라는 주주제안을 요구하자 법원에 이들을 제소한 바 있다.

업계 ‘큰손’들의 반대에도 엑손모빌 기존 경영진은 95%의 지지율로 재신임을 받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개인 이사회 구성원 지지도는 87%로 지난해 91% 대비 소폭 하락했다.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 이사가 90% 미만의 지지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속가능성 미디어 서스테이너블뷰\(SustainableViews\)](#)는 올해 주총에서 엑손모빌에 반대하는 ‘저명한 인사’들의 숫자가 증가했다며 기후 투자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논평했다.

## | 데이터 센터 전력 급증, 에너지 섹터 주가 견인

AI 붐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2026년 전력 수요의 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생에너지 주가도 들썩이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조달 및 에너지 기업들의 자원 확보 경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금융기업 UBS는 [AI 수혜산업으로 태양광](#)을 지목, 미국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퍼스트 솔라의 목표가를 270달러(약 37만원)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 신재생에너지 ETF 중 ‘아이셰어즈 글로벌 클린에너지(ICLN)’ 또한 지난 4월 19일(현지시각) 연저점을 찍은 뒤 5월 말 기준 15.82% 상승했다.

한편 국내 증권가는 AI 전력 수요 대응의 해답은 원자력이라고 봤다. 메리츠증권은 13일 내놓은 ‘ESG 투자 격변기 vol.2’ 보고서에서 2023~2024년에는 AI 침투 가속화로 에너지 소비량의 구조적 변곡점이 발생할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가장 강한 모멘텀을 가져갈 발전산업은 원자력이라고 분석했다.

원자력은 과거 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으로 2020년대 초반 제시된 탄소중립 로드맵에는 다소 배제돼 있었다. 그러나 2022년 유럽연합(EU) 텍소노미에 포함돼 새롭게 부상했으며, 최근 미국 정부 또한 빅테크를 중심으로 소형 모듈 원전(SMR) 정책을 확고히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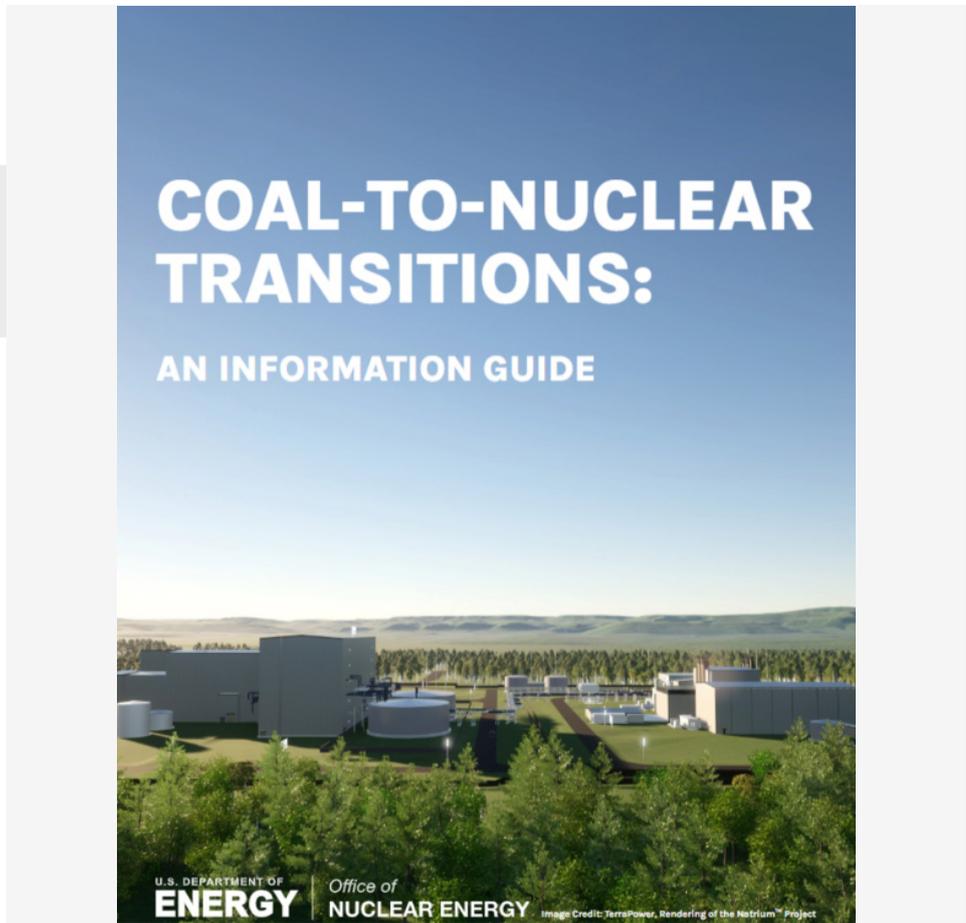
메리츠증권은 전력 수요 폭발로 노후 전력망의 재활용 필요성도 증가하는 가운데, 석탄 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로 전환하는 C2N(Coal to Nuclear) 사업이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부(DOE)**는 석탄에서 원자력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화투자증권**도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은 원자력이 해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100 이후 실질적인 탈탄소화를 위해 CEF를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SMR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이라며 폭발하는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폐쇄 원전이 다시 가동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미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사상 최초로 2년전 문을 닫은 펠리세이즈 원전 재가동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림) 석탄에서 원자력으로의 전환 가이드 / 미국 에너지부



Editor's Comment

미국의 녹색보호주의가 일단 자국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11월 대통령 선거까지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I를 중심으로 에너지 섹터 투자 수요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AI 수혜주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등 인프라 부문이 될 수 있겠다.

## 05 기후테크

### Key Takeaways

-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와 스타트업들이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공장을 신규 건설하거나 대체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알루미늄-탄소 배터리, 철-니켈을 바닷물과 촉매해 만든 나트륨 등 친환경 배터리 소재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배터리 재활용 산업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후테크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기후 복원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 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에 대한 투자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 | 리튬 대체재로 탄소 배출 적은 이온 리튬 배터리 개발

전기차(EV)와 에너지 전환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배터리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은 매년 30% 이상 성장하여 2030년까지 4000억 달러(약 549조 2000억원) 이상의 가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과 유럽 배터리 기후테크들은 민간이나 정부 지원을 통해 배터리 대체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 네이트론 에너지는 미국 최초로 리튬 대신 저렴한 나트륨을 사용한 배터리 공장을 지난 5월 가동하기 시작했다 / 네이트론 에너지



**네이트론 에너지(Natron Energy)**는 미국 최초로 리튬 대신 저렴한 나트륨을 사용한 배터리 공장을 지난 5월 가동하기 시작했다. 네이트론 에너지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4000만 달러(약 545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이 공장은 연간 600메가와트(MW)까지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다.

이들이 개발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전력 밀도가 높고 충전 속도가 빠르며, 리튬, 코발트, 구리, 니켈 등이 없는 불연성 소재로 비교적 안전하다. 이번달부터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배터리 출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업 모빌리티, 전기차 고속 충전,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유사하게 국제 배터리 메탈(International Battery Metals)은 미국 유타주에 **모듈식 직접 리튬 추출(DLE) 공장**을 구축했다. 이 공장은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했으며 염수(나트륨, 이산화탄소 등 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물)에서 리튬의 97% 이상을 추출한 염화리튬을 생산한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시운전 및 가동한 후, 상업적 규모로 리튬을 생산할 예정이다. 연간 최대 5000톤을 생산하도록 설계됐으며, 설치 면적이 3에이커 이하인 모듈형으로서 기존 추출 방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 |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성장 전망 높아

EV 배터리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 생산이나 채굴 외에도 재활용도 중요한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향후 10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하고 전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테크 기업들은 배터리 소재를 재활용해 지속가능한 소재로 혁신하는 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도 이에 집중되고 있다.

(그림) 어센드 엘리먼트스(Ascend Elements)는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서 탄소 배출량을 49% 줄인 양극재 소재를 개발했다 / 어센드 엘리먼트스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어센드 엘리먼트스\(Ascend Elements\)](#)는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서 직접 전구체 합성 공정(Hydro-to-Cathode®) 기술로 탄소 배출량을 49% 줄인 양극재 소재를 개발했다. 양극재는 전기차의 핵심 배터리 소재다. 대부분 중국에서 채굴된 금속으로 생산되지만 어센드 엘리먼트스는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파쇄하고 희유 금속이 포함된 블랙매스를 공급받아 새로운 배터리로 제조할 계획이다. 저스트 클라이밋(Just Climate) 등 투자자로부터 1억6200만달러(약 2158억원)의 신규 자금을 확보해 100만 평방피트 규모의 지속 가능한 리튬 이온 배터리 공장인 ‘Apex 1’도 건설할 예정이다.

미국 스타트업 [라이사이클\(Li-Cycle\)](#)은 북미 자동차 제조사 다이머 트럭(Daimler Truck)과 협력해 폐배터리를 회수 및 수리한 이후 재활용하기로 협력했다. 폐배터리 내 리튬, 니켈 및 코발트와 같은 금속을 추출해 블랙 매스로 변환한 뒤 리튬 카보네이트 등 주요 배터리 재료로 가공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스타트업 리텐(Lyten)도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400만 달러(약 54억9200만원)의 보조금을 확보해 리튬-황 배터리 소재를 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시범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사 보쉬의 투자 부문인 보쉬 벤처스(Bosch Ventures)는 최근 배터리 재활용 벤처기업 두 곳에 투자했다. 보쉬 벤처스는 독일 배터리 재활용업체 사일립(Cylib)과 미국 라이 인더스트리(Li Industries)에 각각 5500만 유로(약 808억원), 3600만 달러(약 486억 원)를 투자했다. 사일립은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리튬, 흑연,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수거 및 재활용한다.

이번 투자는 유럽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제시한 투자금 중 최대 규모다. 라이 인더스트리는 리튬인산철(LFP)과 같은 저코발트 배터리를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재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기후테크 기업인 [알틸룸 메탈스\(Altilium Metals\)](#)는 폐배터리를 CAM(양극활물질) 및 고니켈 P-CAM으로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한 사례를 발표했다. 리튬 뿐 아니라 리튬인산철(이하 LFP)을 회수해 지속 가능한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한다. 알틸룸 최초의 대규모 재활용 시설을 영국에 설립해 LFP를 포함한 배터리 화학 물질의 혼합 공급을 처리할 예정이다.

## AI로 기후복원력 높이는 플랫폼, 떠오르는 투자 전망 분야로 꼽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상 예측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올 여름에도 폭풍 빈도와 강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최근 극단적인 날씨와 날씨의 불확실성이 향후 10년 동안 기업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산업의 기후 복원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기상 예측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몇 달간 AI 기술로 기후 복원력을 증진하는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분야도 인프라, 제조, 농업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달 간 글로벌 산업의 기후복원력을 높이는 AI기술로 투자를 받은 글로벌 기후테크 5곳을 소개한다.

(그림) 아이대시(AiDash)는 위성분석 및 AI 기술로 지속가능한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 아이대시



미국 스타트업 [아이대시\(AiDash\)](#)는 위성분석 및 AI 기술로 지속가능한 인프라 소프트웨어로 시리즈 C 펀딩 라운드에서 5850만 달러(약 803억 2050만원)의 투자를 받았다. 이들은 송전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재 및 기상 위험을 파악하고 위성 이미지를 스캔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통해 화재, 폭풍 등 기후 재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실제 정전 건수를 15% 줄이는 반면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효율은 10~20% 높였다.

미국 [윈드본\(Windborne\)](#)은 기상 현상을 감지하기 위해 AI 기반 기상 예측 기술을 개발 및 출시했다. 기후 풍선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위성 통신을 사용한다. 정부가 개발한 기상관측용 풍선은 지속 시간이 짧으며 외진 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윈드본의 풍선의 지속 시간은 약 2주 정도이며, 해양과 관측이 부족한 외곽 지역까지 관측이 가능하다. 이에 풍선 1개당 기존 대비 약 40~50배 많은 기후 및 환경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전 세계 대기 데이터 전체의 85%가 부족하다. 윈드본은 AI기술로 데이터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선두 투자자인 코슬라 벤처스와 함께 1500만 달러(약 205억원)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비즈카브](#)는 지난 5월 말 시리즈 A 자금 450만 유로(약 67억 1539만원)를 추가로 조달하여 올 상반기 내 900만 유로(약 134억 3079억원)의 자금을 획득했다. 지난 연말에도 500만 유로(약 74억 6155억원)의 시리즈 A 초기 자금을 받은 이후 연쇄 투자를 받은 것이다. 비즈카브는 건설 프로젝트의 탄소 영향을 줄이기 위해 건물의 LCA를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한다. 건축가, 엔지니어, 제조업체, 건설기업 등 건설 산업 내 이해관계자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능을 구축하고 있다. 2030년까지 건물 내 LCA 도입 의무화 규정에 따라 높은 가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비즈카브는 2028년까지 1000㎡를 초과하는 대형 건물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기술 스타트업인 [일렉트릭 맵스\(Electricity Maps\)](#)는 지난 5월 500만 유로(약 74억 6155억원)의 자금을 투자 받았다. 전기의 탄소 강도를 정량화하고 탄소 배출량 및 전력원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했다. 기업 사용자들은 전기 사용량의 탄소 발자국을 감축할 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을 계획할 수 있다. 삼성은 스마트싱스 에너지(SmartThings Energy) 앱에 이 플랫폼을 도입했다.

Editor's Comment

기존 리튬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소재 개발과 폐배터리 재활용 등 배터리 기술 혁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친환경 소재와 비용 효율성 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기술 개발과 투자로 인해 상업적 규모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배터리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술 개발로 기상 예측, 재난 대응, 에너지 관리, 스마트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다.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들의 기후 복원력을 강화하는 플랫폼은 필수 도구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 06 이달의 핫이슈

### Key Takeaways

- 현대자동차가 결국 미 노동부로부터 아동노동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앨라배마주 공장의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에서 주당 최대 60시간을 일한 13세 소녀를 포함, 공급망의 아동 노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소송이다.
- 테슬라는 지난 5월에만 캘리포니아에서 환경소송, 독일에서 공장 확장에 대한 기후 활동가들의 반발로 인한 폭력사태 발생, 뉴욕주 버팔로 조립공장 노조 결성 방해로 인한 노동부 고발 등 각약각생의 소송 및 운영 리스크에 처해있다.
- 미국 노동조합이 자동차 업계 이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집단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도 있었다. 70만명의 미디어통신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전미통신노동자(CWA, 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그룹은 마이크론과 노동 평화협상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 | 현대차, 협력업체 아동노동 리스크 결국 소송으로

본사에서 공급망의 협력업체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소송 리스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2022년 8월에 로이터에서 처음 보도된 이후, 로이터의 지속적인 보도와 미국 상원의원에서 아동노동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으로까지 이어진 앨라배마 사건이다. 지난해 2월 현대차는 문제가 된 협력업체 2곳과 거래관계를 중단했지만, 아직 법적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5월 30일(현지시각) 미 노동부는 앨라배마주의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불법적인 아동노동이 있었던 데 대해 책임을 지도록 [현대차를 고소했다고 뉴욕타임즈, 로이터 등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지방법원에 제출된 이 고소장에 따르면, 13세 소녀는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라는 인력모집업체를 통해 현대차의 스마트 앨라배마 공장에 고용됐으며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일했다고 한다. 이밖에 두 명의 다른 미성년자도 공장에 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현대차 제조 앨라배마 LLC, 부품회사인 스마트 앨라배마 LLC, 인력모집업체인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 LLC 등 3개사를 피고로 삼았다. 미 노동부는 아동노동 사용으로 인해 얻어진 모든 이익을 포기하라는 명령도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는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더 이상 스마트 앨라배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는 “수개월에 걸쳐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광범위한 개선 조치를 취했다”면서 “미 노동부는 협력업체의 행동에 대해 (본사인) 현대차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묻는, 전례없는 법적 이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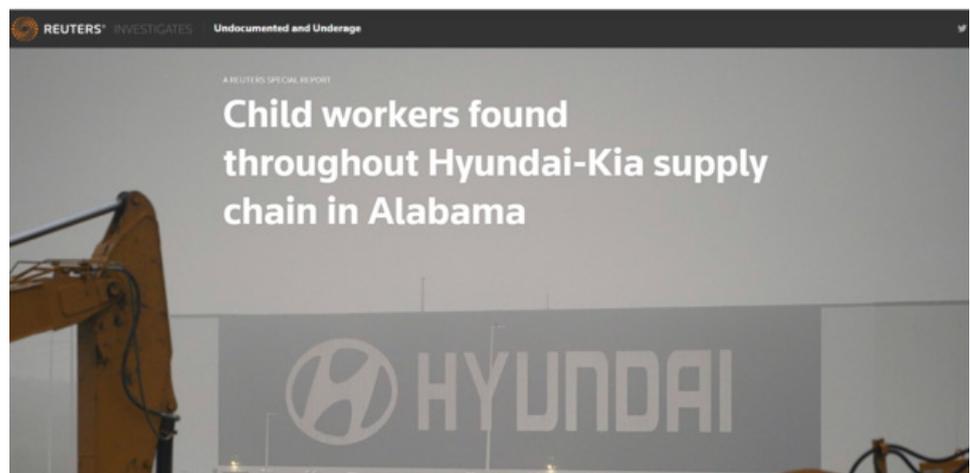
한편, 미 노동부는 현대차가 ‘공정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했으며, ‘최저임금, 연장근로 또는 아동노동 조항을 위반해 생산된 물품의 상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노동부의 최고 법률책임자인 시마 난다는 성명을 통해 “기업들은 아동노동 위반에 대해 협력업체나 고용회사를 비난함으로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것은 로이터와 뉴욕타임즈의 대대적인 미국 공장 내 아동노동 실태에 대한 탐사보도로부터 나왔음을 밝히고 있다. [2022년 로이터는 현대차와 기아 공장에서 아동노동이 있었음을 밝히기 위해 100명 이상의 전현직 공장 노동자와 관리자, 인력 모집인, 주 및 연방공무원 등을 인터뷰했고, 기자들은 수천 페이지의 법원기록, 기업문서, 경찰보고서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후 뉴욕타임즈 또한 2023년 GM과 포드의 협력업체에서도 아동노동이 있었음을 보도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가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조사한 아동노동 사건은 955건이나 된다. 노동부는 위험 작업기준을 위반해 취업한 502명을 포함, 전체 5972명이 아동노동으로 취업했음을 밝혔다.

한편, 이런 와중에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세 확대를 위해 현대차의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들에게 노조가입을 위한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지난 5월 20일 메르세데츠-벤츠 앨라배마 공장에서는 노조 결성이 좌절된 바 있으며, 6월 현대차 공장 직원들은 UAW 가입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직원들과 활동가, ‘가난한 사람들(Poor People)’ 캠페인의 윌리엄 바버 목사 등 종교지도자들은 노조 설득을 위해 군중을 모았으며, 공장 직원 중 한명은 “근로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질병과 부상에 대한 편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로이터에 보도된 현대차 협력업체의 아동노동 사건 관련 탐사보도 / 로이터 캡처



##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독일까지 연이은 소송과 시위 리스크에 처한 테슬라

테슬라의 리스크도 현대차 못지 않았다. 테슬라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측면에서 수많은 고소와 소송에 처해있다. [로이터가 14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이 질소산화물, 비소, 카드뮴 등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여 캘리포니아주의 청정 대기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소송에 직면했다. 환경단체는 2021년 1월부터 도색작업 과정에서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오염 물질에 노출시켰다며, 청정 공기법(Clean Air Act) 위반에 따라 오염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과 하루 최대 12만달러(약 1억6000만원)의 벌금을 요구했다.

한편, 테슬라 독일 베를린공장에서는 공장 확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폭력사태로까지 번졌다. [BBC에 따르면](#), 수백 명의 기후 시위대가 베를린 인근 테슬라 공장을 습격하려다 경찰과 충돌, 경찰관 3명을 포함한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 활동가들은 공장 규모를 두 배로 늘리려는 테슬라의 계획이 환경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장 확장을 위해 개간될 것으로 예상되는 숲의 일부를 몇 달 동안 점거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은 인근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선로에 앉아 철도 서비스를 방해했다. 경찰은 시설 진입을 시도한 시위자들이 진입을 막았고 여러 명을 체포했다. 테슬라는 이날 공장을 선제적으로 폐쇄하고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테슬라는 다양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리스크에 처해있다. / 픽셀



테슬라는 또 [뉴욕주 버팔로 조립 공장의 노조결성 방해를 이유로 미국 노동부에 고발을 당했다고 9일\(현지시각\) CNBC가 보도했다.](#)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 따르면, 테슬라는 뉴욕주 버팔로에서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테슬라가 2023년에 직장 내 기술에 대한 사용 정책을 공표했는데, 이 정책의 목적은 직원들의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정책은 직원들이 녹음, 권유 또는 홍보, 채널 및 배포 목록 작성을 제한했다고 알려졌다.

[스웨덴 최대규모 노조는 테슬라의 단체교섭권 불인정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10월, 스웨덴 금속 노조 IF Metall에 소속된 130명의 정비소 정비사들은 테슬라와에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1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대 행동을 시작했고, 가장 최근 합류한 노동조합은 스웨덴 최대 규모 노조 유니오넨(Unionen)이다. 유니오넨은 장비 검사를 진행하는 DEKRA Industrial의 테슬라 관련 작업 봉쇄를 시작했다.

사건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은퇴한 델라웨어 대학의 찰스 엘슨\(Charles Elson\) 교수는 “테슬라가 자신이 자신이 30년 넘게 일해 온 로펌인 홀랜드 앤 나이트를 그만두지 않는 한 회사와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엘슨은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를 짜증나게 한 사람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로펌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한 것이 처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머스크가 받기로 한 560억달러(약 74조원)의 스톡옵션 보상 패키지를 무료로 판결했고 테슬라는 머스크의 보상을 재개하기 위해 새로운 주주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엘슨은 이에 대해 델라웨어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인물이다.

## | 자동차 이어 반도체 노조 리스크도 시작?

지난 5월에 등장한 리스크 중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이색 리스크도 있었다. [먼저 영국의 석유가스 노조가 “직무전환에 대한 계획없이 시추 허가를 중단해선 안된다”고 촉구한 것이다.](#) 영국의 노동조합 유나이티드(Unite)가 노동당에 이런 사항을 요구했는데, 즉 일자리 계획 없이 새로운 북해 시추 면허를 금지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 캠페인의 이름은 ‘계획없이 금지하지 말라(No Ban Without Plan)’이다. 석유가스 노동자들은 "우리 세대의 석탄 광부"가 될 위험이 있다며 노동당이 일자리와 지역사회를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석유 및 가스 탐사에 대한 신규 라이선스를 계속해서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넷제로 재단에 희생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 노동조합이 자동차 업계 이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집단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도 있었다. 반도체에서 청정 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에 이르는 기술에 수 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바이든의 경제 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업계 이어 반도체 업계에서도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하다. 약 70만 명의 기술 및 미디어 노동자를 대표하는 미국통신노동자협회(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CWA)는 뉴욕에 위치한 칩 제조업체의 500억 달러 규모의 2개 공장 투자를 다루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CWA는 2028년과 2029년 무렵 새로운 공장이 가동될 때 피켓 시위, 파업 또는 기타 방식으로 마이크론의 운영을 방해하지 않으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노조 파괴 컨설턴트를 고용하거나 CWA의 조직화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자동차 빅3에 맞서 파업을 벌임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공장으로도까지 무대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이제 그 흐름이 반도체 부문으로까지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인텔, 마이크론, TSMC, 삼성전자 등 칩스 법 보조금을 얻어내려는 기업들의 인센티브를 잦대로, 또 이번 재선에서 많은 표가 필요한 바이든 행정부에게 UWA의 “노동자 보호 강화 요구” 안은 충분히 협상안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p>Editor's Comment</p>	<p>유럽에서 공급망실사법(CSDDD)이 통과됐고, 이는 결국 전 세계 무역권이 공급망의 가치사슬로 연결돼있는 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비즈니스 리스크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해외 NGO와 노동조합의 경우, 국내의 시각으로만 이를 대처할 경우 집단소송 리스크 및 공장에 대한 운영 및 재무리스크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해보인다.</p>
-------------------------	--

참고) 임팩트온, <글로벌 비즈니스 리스크 모니터링>

-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y9EDLn6sDgTyG8e8yL8vTFkbajrSP9E>
-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_WYme\\_fVC88oF3-mH1\\_S\\_Le1t0Q-3EY](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_WYme_fVC88oF3-mH1_S_Le1t0Q-3EY)
-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HzwYcmii7QdDjQYcAQqZs1g\\_VLhmMNE](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HzwYcmii7QdDjQYcAQqZs1g_VLhmMNE)

☞ 임팩트온의 글로벌 비즈니스 리스크 모니터링 서비스가 궁금하시면, master@impacton.net으로 문의해주세요.